

전주시, '아동 목소리' 시정에 담는다

'아동정책참여단' 발대식 개최... 굿네이비스·지역아동센터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대면 활동 강화로 운영 내실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전주시가 올해도 미래 주역인 아이들과 함께 아동정책을 발굴하기로 했다.

시는 15일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교육실에서 아동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아동 참여권 증진 활동인 '2026 아동정책참여단'의 발대식을 가졌다.

'전주시 아동정책참여단(굿네이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은 지난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아동 참여기구로, 올해는 완산·덕진 권역 지역아동센터에서 선발된 아동 40명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대학생 멘토 6명으로 구성됐다.



전주시는 15일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교육실에서 아동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아동 참여권 증진 활동인 '2026 아동정책참여단'의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김현욱 시 복지환경국장과 유기용 굿네이비스 전북중부지부 본부장, 이선숙 신한 지역아동센터장, 파송지역아동센터의 백선영 생활복지사 및 관계자 등 주요 관계자와 아동정책참여단원, 대학생 멘토 등 60여 명이 참석하 가운데, 식전 공연인 '달콤한 솜사탕 여행'을 시작으로 위촉장 전달과 아동권리 사전 조사, 활동 선서문 작성 및 단체 사진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아동정책참여단은 굿네이

비스 전북전주1·2지부의 전문성과 지역아동센터(신한·파송)의 현장성을 결합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운영되는 것이 특징으로, 기존의 비대면(온라인 밴드) 위주의 운영 방식을 전면 대면 활동으로 전환해 아동들 간의 소통과 사업의 내실을 강화했다.

참여단은 앞으로 △아동권리 교육(5월) △아동권리 실태조사(6월) △정책 체험 워크숍(7~8월) △포토보이스 기반 정책제언(9월) 등 단계별 프로그램

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은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시는 향후 아동들이 제안한 의견을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치 결과를 아동들에게 직접 환류(피드백)해 정책 참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오는 10월에는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최은희 굿네이비스 전북전주1지부지부장은 "아동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이번 과정이 아동권리 향상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미선 전북전주2지부지부장은 "아동권리보장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욱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참여단 활동이 아동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아동의 의견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아동친화도시' 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에 함께하는 굿네이비스 전북전주1지부(지부장 최은희)와 전북전주2지부(지부장 김미선)는 지역사회 내 학대, 빈곤 및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아동복지전문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초록서포터즈'

전주시,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 홍보·현장 지원 등 추진

전주시가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15일 전주정원문화센터 2층에서 정원에 관심이 있는 전주시민과 시민정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초록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시는 오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펼쳐지는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에서 '초록서포터즈'를 운영할 예정으로, 이들은 정원도시 전주를 알리고 오는 5월에 개최될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홍보하는 등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향후 활동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초록서포터즈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캠페인 활동 △

SNS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덕진공원에 조성되는 다양한 정원전시 홍보 △박람회 행사장 내 현장 지원 등 박람회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초록서포터즈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진행하게 된다.

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초록서포터즈가 전주만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함으로써 전주정원산업박람회와 전주민의 정원문화 산업에 대한 친근하고 공감도 높은 홍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병구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정원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이번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전주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원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가 15일 2025회계연도의 결산검사를 위해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전주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현장 점검

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6882, 6884, 2373)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어 이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이기동 의원)가 15일 2025회계연도의 결산검사를 위해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이날 덕진공원과 아중호수도서관,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장, 평화동 청년만원주택 등을 찾았다. 이들은 사업 추진 성과와 예산 집행 현황을 살피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 여부 및 예산 낭비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기동 대표위원은 "서류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꼼꼼한 점검을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 없이 합리적으로 운용됐는지 철저히 검증

해 내년도 예산 편성의 지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 결과를 점검하는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난 3일 시작해 오는 22일까지 전주시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등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낭비 요소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에 전주시의회 이기동(행정위원회, 완산, 중화산 1·2동) 의원을 비롯해 송영진(조춘, 여의, 혁신동) 의원, 김희수 전 도의원, 윤종조 전 전주시의원, 김상용 전 전주시 공무원, 박경기 회계사, 송정아 세무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나선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전주시가 올해도 경기침체 및 고물가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주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이내, 업체당 30만원까지 지원하는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4월 7일) 기준으로 전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지난해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카드가맹점의 소상공인이다.

단, △공고일 이전 폐업했거나 타 시

도로 이전한 사업장 △유형업과 도박업 등 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신청 기간 내 전주시 누리집의 통합신청지원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주교, 콘텐츠 창의 인재 양성 '맞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5일 진흥원 1층 세미나실에서 전주교등학교와 '콘텐츠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 이하 진흥원)은 15일 진흥원 1층 세미나실에서 전주교등학교(교장 장경호)와 '콘텐츠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양 기관이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고, 실무 중심의 콘텐츠 교육을 강화해 지역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진흥원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진로 탐색 지원 △고교특화형 비주열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지원 △콘텐츠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 운영 △기타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한 협력 사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지난 13일에는 전주교등학교 신입생 약 3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비주열 프로그램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신 콘텐츠 제작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소개한 바 있다.

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 간 협력을 본격화하고, 앞으로도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과 기술 흐름을 학생들에게 꾸준히 전달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